

“더는 못 버텨”...광주·전남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역대 최대

고금리·경기불황 장기화에 지급액·지급건수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58%서 올 2월 0.72%로 급등

끝나지 않는 경기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광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 명목 지급액은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2억원) 대비 33%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95건으로 전년 동기(1029건)에 비해 166건(16.1%) 증가했다.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0년(2187건·186억원)→2021년(2700건·246억원)→2022년(2455건·252억원)→2023년(3009건·319억원)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올 4월까지의 수치를 볼때,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1122건,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1046건·107억원)에 견줘 각각 7.3%, 19.6% 상승했다. 전남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 역시 지난 2020년(1708건·142억원)→2021년(2069건·192억원)→2022년(2142건·215억원)→2023년(2981건·312억원)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이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찾는 마지막 기회 성격의 자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은행권 대출 등으로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들이 엔데믹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손해를 누적된 끝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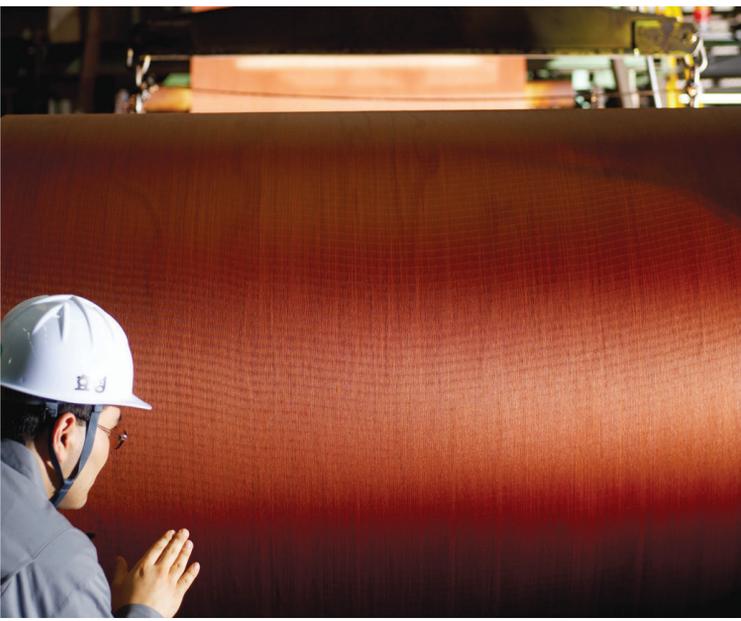
이와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예금은행 기업대출 규모와 연체율 역시 끝을 모르고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광주시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0.72%(2월)까지 치솟았다. 광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지난 2021년(0.34%)과 2022년(0.35%) 0.3%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0.58%로 폭등했다. 이후 지난 1월(0.7%)과 2월(0.72%), 3월(0.62%)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 중소기업들의 예금은행 기업대출도 불어나고 있다. 올 3월 기준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27조 4074억원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27조원을 돌파한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줄곧 상승하고 있다. 전남지역 예금은행 연체율 역시 지난 2021년(0.23%)과 2022년(0.3%)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0.51%까지 폭등했다. 다만 올해 들어 1월(0.52%)→2월(0.39%)→3월(0.3%)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중소기업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지난 3월 기준 17조 6660억원으로 전년(17조 5270억원)보다 0.79% 상승했다. 지역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라이오셀 타이어코드 친환경 국제인증 획득

국내 타이어코드 업계 최초

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 업계 최초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중인 라이오셀 타이어코드에 대해 친환경 소재 국제 인증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증은 산림이 손상되는 생산 방식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것으로, 산림(목재)을 사용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다.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과 폐수 발생량이 적어 레이온 대비 친환경 공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또 목재에서 추출한 환경친화적 소재인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만들어져 100% 생분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2006년 세계 최초로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를 상업화했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라이오셀 타이어코드의 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친환경 경쟁력을 추가로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산구조 구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효성 제공〉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절반으로 ‘뚝’

1위는 호반 일감 몰아주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호반건설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7600만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

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큰 소수의 ‘아웃라이어’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구글의 ‘윈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의 경쟁사인 윈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 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뽑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오토랜드 광주, 올해도 지역사회 청소년 꿈 응원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올해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문재용)는 지난 21일 ‘2024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사업은 ‘기아챌린지 콘서트’, ‘수상한 과학교실’, ‘기아 퓨처챌린지’, ‘찾아가는 예술랜드 프로그램’ 등이다. 먼저 기아챌린지 콘서트는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멘토들의 강연 및 문화예술 콘서트를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콘서트는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지역 6개 중·고교를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찾아가는 예술랜드는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과 샌드 아트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며, 올해는 신규로 신청한 아동센터를 우선으로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기아챌린지는 문화예술 재능을 가진 특기를



‘2024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문재용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가운데)이 이정선 교육감(오른쪽), 김재춘 관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졌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무용과 미술, 판소리 등 분야에서 수상내역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된 8명의 문화예술인재는 5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 행사에서 문재용 공장장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재춘 초록우산 광주거점위탁센터 관장에게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사업은 문화예술 컨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93.5...전월 대비 1.5P 올라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4년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5월 중 CCSI는 93.5로 전월(92.0) 대비 1.5p 올랐다. 다만 전국 CCSI(98.4)에도 미치지 못했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당 조사 결과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 535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다. 광주·전남지역 CCSI는 지난 1월(92.1), 2월(93.6), 3월(93.8) 등 지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92.0)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

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가계수입 전망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CCSI 구성지수의 기여도를 보면 소비지출전망 항목에서 전월 대비 1p 감소했지만, 나머지 항목인 현재생활형편(+0.5p), 생활형편전망(+0.8p), 가계수입전망(+0.7p), 현재경기판단(+0.1p), 향후경기전망(+0.4p)은 모두 상승했다. 다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지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SI는 지난 20년 동안의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현재 경제상황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가리킨다. 광주·전남지역 CCSI는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24개월 동안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정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광주국세청 군산·해남 종소세 신청창구 점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규)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지난 21~22일 군산세무서와 해남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신청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동규 청장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고, 특히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도 발송

했다”며 “ARS 전화와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며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환급세액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테크노파크, 철강산업 재도약 위한 기업지원 설명회

기술세미나도 함께 개최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가 24일 오후 광양 라히호텔 15층에서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양혁신산단에 위치한 전남TP 철강산업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철강산업 재도약 회원사 모집 및 기업 지원, 열처리 장비 활용 기술 지원, 광양만권 차세대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 양성사업,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사업,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 (주)포스코 기술연구원이 지역 철강 중소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자동차용

철강 소재부품 산업과 고강도 강관산업 및 기술동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중소철강사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융합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3.46(-0.72)
↓ 코스닥	845.72(-0.79)
↓ 금리(국고채 3년)	3.409(-0.002)
↓ 환율(USD)	1362.90(-0.40)